

# 익산시, 골목경제 살린다

### 소상공인 지원 '확대' ... 추경 21억원 포함 총 59억원 투입

익산시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정부의 정책자금 프로그램 기반으로 자금 지원 규모를 늘리고 경쟁력 강화 지원에 무게를 뒀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도모한다.



2일 시는 제2회 추경을 통해 정부 정책자금 이차보전 등 10개 사업, 총 21억원의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확보했다. 이번 예산 확보로 올해 총 59억원의 소상공인 관련 예산이 편성됐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14억원 이상 늘어난 수치다.

대표적으로 추진될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정부 정책자금에 대한 최대 2%의 이자를 지원하는 '정부 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 5억원을 비롯해 옥외 간판 교체 및 내부 인테리어 개선 등을 지원하는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6천만원, 경영진단과 마케팅 등

점포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3천5백만원 등이다.

각 사업은 이달부터 사업별로 공고 후 신청·접수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산이 대폭 늘어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및 이차보전금 8억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금 5억6천만원,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9천5백만원 등이 추가 확보돼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소비자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해 2천5백만원을 확보했다.

이들 중 착한가격업소 17개소를 대상으로 다리로움 정책수당 1백만원 지원을 시작으로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다리로움 해택도 지속된다. 예산이 추가 확보돼 개인별 다리로움 20% 지원혜택(100만원 한도 내 중전 시 할인판매 인센티브 10% 적립, 소비자직접지원금 10%)이 하반기까지 연장됐다.

다만 고소득 소비자에 인센티브 수혜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센티브와 소비자직접지원금을 50만원 이내 10%, 50만원 초과 ~ 100만원 이내 5%로 차등 지원된다.

다양한 사업 확대로 영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예산을 대폭 확대해 선제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기자

# '만나보자 미래성장 탄탄기업 사업' 참여 기업 모집

### 군산시, 국비 확보로 총 200여명 정규직 일자리 지원

군산시가 오는 5일까지 '만나보자 미래성장 탄탄기업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만나보자 미래성장 탄탄기업 사업은 시가 청년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시행하는 시는 참여기업을 모집해 청년별로 적합한 일자리를 매칭해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 청년 인재 유입 및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현재 50개 기업에서 130명의 인력 채용을 완료한 탄탄기업사업은 1억 700만원의 국비 확보를 통해 하반기에 추가로 70여명의 청년들을 모집할 계획이다.



군산시가 오는 5일까지 '만나보자 미래성장 탄탄기업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임금 보전, 복지후생 등을 추가 지원해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집에 관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전북산학융합원 홈페이지(<http://www.ju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전북산학융합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홈페이지 또는 전북산학융합원(063-472-28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참여 기업 선정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의 서면심사와 현장평가를 통해 오는 16일 최종 결정되며,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청년 근로자를 매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협력업체의 안정적 일자리지원과 전기차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익산=김판곤 기자

# '시민 중심 방역 생활화'

### 익산시, 3주간 다중이용·공공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특별지도

익산시는 시민 중심의 일상 속 특별 방역 실시로 감염고피 차단에 나선다. 시는 전국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에 따라 이달 21일까지 3주간 시민 참여 기반 특별 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 확산 정점시기가 8월 중순에서 8월 말로 예상함에 따라 이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단계적 특별 방역 대응에 나선 것이다.

특히 일상 방역 생활화를 통해 감염 연결 고리를 차단함으로써 지역 확산을 저지하기 위함이다.

시는 사람들이 자주 찾는 식당, 카페, 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시설과 고위험군이 주로 이

용하는 경로당 노인종합복지관 등 감염취약시설에 △올바른 마스크 착용, △주거적인 환기·소독 등 일상 방역을 중점적으로 특별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8일 기준 4차 접종률은 16.0%로, 접종률을 제고하고자 4차 접종 대상자에게 백신 효과성 등 홍보 및 접종 안내·지원 등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독려할 계획이다.

자발적인 일상 방역이 중요해지면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 시는 모임을 가급적 자제하고, 여름휴가에서 복귀하기 전 자가진단키트 검사를 권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고 있다.

익산=이재춘기자

# 군산비행장, 군소음보상금 7억4800만원 지급 결정

군산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열어 지난 6월 접수한 이의신청 및 보상금액 직권정정을 심의한 결과 제차 보상대상 2224명, 7억4800만원에서 4,500만원을 추가해, 2,225명, 보상금액 7억4,8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접수한 이의신청 건은 총 41건으로 보상지역 27명, 보상 제외지역 14명이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은 개별 통지되며 결정통지서에 동의서를 제출하면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의신청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이의신청을 통해 국방부에 재심을 신청 할 수 있다.

아울러 보상지역의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도 국방부의 답변을 받아 진행할 계획이며, 군산시는 전투기 소음 등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할 계획이다.

익산=김판곤기자

# 익산시, 청년 미래설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익산시는 일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지역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다.

익산시 청년자산형성통장은 근로 청년에게 매달 일정금액(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적립하면 3년간 익산시가 본인 저축액과 동일 금액으로 자립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의 2배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지급 받아 학자금 대출, 결혼자금, 주거비 등 청년 미래 설계를 위한 자립기반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시는 '2022년 익산시 청년 자산형성 통장 지원사업' 대상자 최종 51명을 선정해 이달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가입자가 3년 동안 매달 15만원씩 저축하면 만기 시 자신이 낸 540만원을 포함 1,08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대상자를 보건복지부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와는 달리

기준 중위소득 120%까지 모집해 선정했다. 또한 급여가 월 300만원 초과 시 자동 해지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달리 급여 인상 여부와 상관없이 통장 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이는 지원대상 범위를 넓혀 사회 초년생인 근로 청년에게 자산형성을 도와 안정적으로 경제 기반을 마련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익산시는 청년자산형성통장은 내년도에 기준중위소득 요건을 더욱 완화해 더 많은 지역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일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통해 익산에서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 시책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서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시, 친환경 그린상점 지원사업 참여 독려

군산시는 카페에서 1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고자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 그린상점 지원사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올해 6월에 시행할 예정이었던 1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12월로 유예됐다. 시는 이와 별도로 텀블러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음료 할인을 제공하는 카페를 모집해 종량제 봉투 등 보상품을 지원하는 친환경 그린상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군산 관내에는 513개 정도의 카페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사업에 참여를 신청한 카페는 저조한 상황으로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미참여 카페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친환경 그린상점 신청 시 부여받은 스티커를 카페에 부착해 텀블러를 사용한 고객에게 300원을 할인해 주고, 텀블러 사용을 활성화해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 군산시, 내년 임업경영체 직불금 신청 9월30일 마감

군산시는 첫 임업직접지불제도가 오는 10월 시행함에 따라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을 지난 1일 접수 마감했다.

2022년 임업직불금 지급은 올해 6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산지가 위치확인·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지난 1일까지 신청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 사항 이행 점검 등을 통해 직불금 신청 후 지급할 예정이다.

2023년 이후 직불금 신청자는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지 않으면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어 임업인과 산주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아직 임업경영체를 미등록했다면, 기한 내에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정읍국유림관리소(전주지점) ☎063-237-5036~8)를 통해 임업경영체 등록신청을 하면 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